

KDB 소식

2024 April vol. 400

1st

STORY

2024년 신입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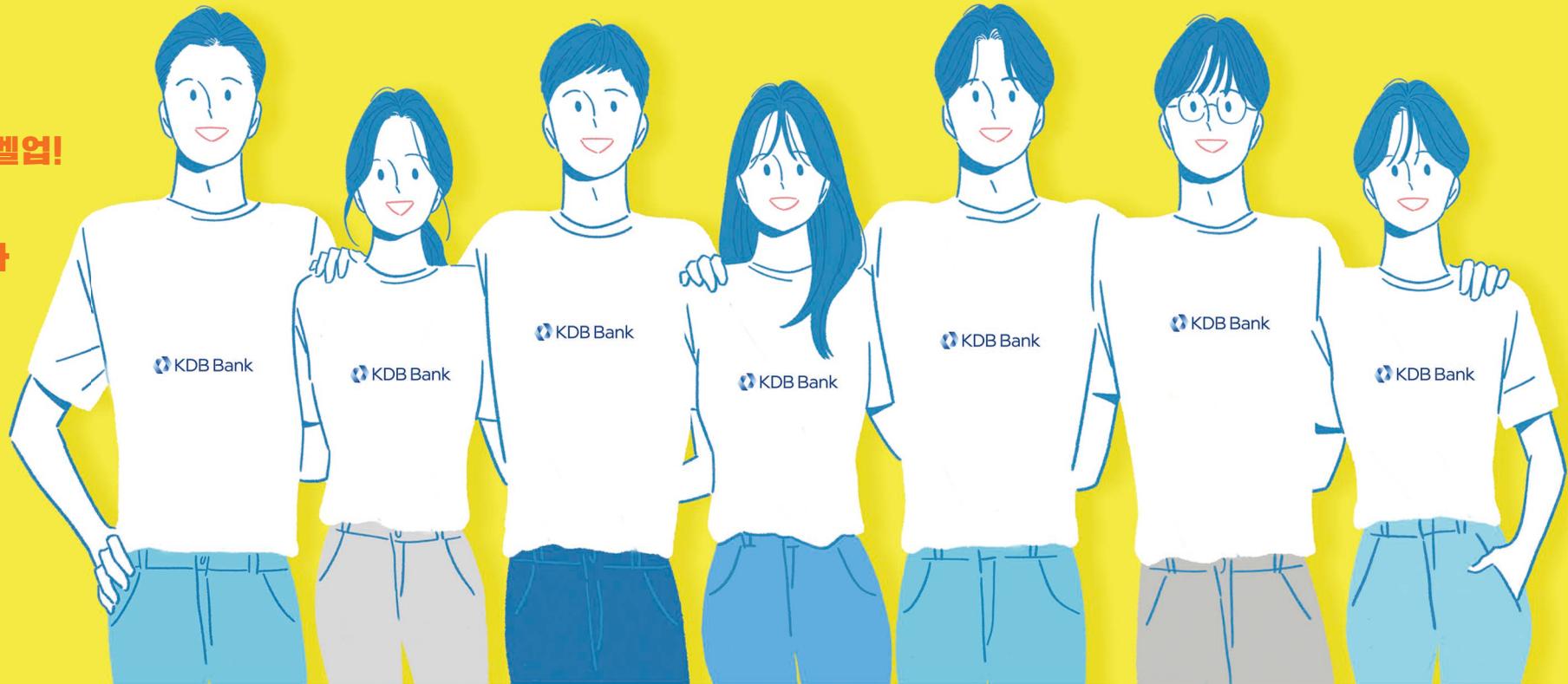
INTERVIEW

산은인으로 드디어 레벨업!

PEOPLE

신입행원을 소개합니다

New
START



CONTENTS.

2024 April
vol.400

STORY

1



INTERVIEW

2



PEOPLE

3



STORY

2024년 신입의 등장

3월 8일, 2024년 상반기 신입행원 연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각 팀에 신입행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지난 3개월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4년 상반기 신입행원 연수를 따라가 봤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신입행원 연수가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은행 본점 및 디지털 스퀘어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2월 29일부터 개강식 및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일반직B 신입행원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직B 신입행원 연수는 기본 소양, 수신(외국환) 업무 이론 및 실습, 영업점 OJT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직A의 신입행원 연수는 1월 3일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1월 31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2달간 본점 및 디지털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여신이론 및 실습, 산업은행 맞춤 산업 스터디, 행원의 자세 등 기본소양 교육, 미니 운동회, 솫폼 제작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실제적인 직무교육

일반직A 연수의 가장 큰 목표는 '신입행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 '실제적인 직무교육', 그리고 '동기의식 및 조직 소속감 제고'였습니다.

우선 1월 3일 예비소집일에는 신입행원들에게 '정책금융기관 역할의 이해'라는 사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부터 3월 7일까지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과정은 ▲여신이론 및 실습 등 직무교육 ▲전통산업, 초격차산업 등 KDB 맞춤 산업 스터디 ▲신입행원의 자세 등 기본소양, ▲미니 운동회, 솟품 제작 프로젝트 등 팀 빌딩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신입행원들은 일정 상 부서 배치 직후 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고도화된 여신 실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전 기수보다 KUPID 실습 시, 담보물건 입력 및 검토를 강화했고, 신용평가시스템 실습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한 비전공자들을 위한 주요 재무·손익비율 해설 특강과 승인신청서 작성 실습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정도 팀 빌딩과 친목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차에는 다같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으며, 3주 차에는 미니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4주 차에 진행된 '솟품 영상 제작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솟품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팀을 꾸려 각각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정하고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일반직B 연수는 일반직A보다 5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소양을 배우고, 이후 수산업무 이론 및 실습 그리고 영업점 OJT를 거친 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첫 주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 보수·복지제도 등 산업은행의 제도 및 조직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3주차에는 예금상품, 신탁, 산업금융채권 및 외국환업무 등을 학습하며 이론적인 기초를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에는 실습 및 영업점 OJT를 진행했습니다. 영업점에 바로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전산실습은 창구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개인고객 등록, 계좌 신규개설 등 화면을 연습했습니다. 이어 지점에서 일주일간 OJT를 하며 선배들의 노하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의식을 길러 주기 위해 2박3일동안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하고, 또 뮤지컬을 감상하며 친목을 쌓았습니다.



두 연수가 모두 끝난 후, 강석훈 회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부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입행한 신입행원 모두 축하합니다. 저는 각 신입행원에게 자신만의 AB-CD(Attitude, Basic, Collaboration, Dream)의 가치를 정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함께 80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꾸준히 발전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의 구성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행원들에게 모두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산은인으로 드디어 레벨업!

산은은행에 새로운 얼굴이 떴다! 바로 2024년을 빛낼 '24K' 신입행원입니다. 약 2달 동안 진행된 연수를 마치고 각 부서와 지점에 발령받은 신입행원을 보면서 막 입학했을 때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선배님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순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24K' 신입행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학했는지 또 어떤 포부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신입행원의 교육을 맡은 연수팀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연수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배웠는지 살펴볼까요?

신입행원
지역성장지원실
정재훈 행원



저는 산업은행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사1부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멋진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빨리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고 느꼈던 것이 취업 준비라는 힘든 시기에 저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산업은행에 세 번이나 도전한 삼수생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최종 합격'이라는 글귀를 봤을 때,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곧바로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영상통화 너머 감격의 춤을 추는 부모님의 모습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 당시에 큰 도움을 주셨던 심사1부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 도움이 되는 후배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입행원이 당장은 서툴지만 산업은행의 70년 역사를 훌륭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입행원
기업금융2실
전민주 행원



저는 산업은행이 국내 최초 PF 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진 금융기법을 시도하는 이곳에서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동안 많은 교육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선배와의 대화'가 가장 생각납니다. 저희 조에는 영업투자기획부의 '조나람'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사 선배로서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업무나 회사 관련해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의 이름을 미리 다 외워 오신 것도 감사했는데, 부서 배치받고 난 뒤 먼저 식사 연락주겠다고 해 주셔서 저희 조원들이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신입행원이 초반에는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선배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실수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행원
**청주지점
 공유민 행원**

신입행원
**당진지점
 강학구 행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자금 지원하는 산업은행을 보며 항상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평소 무뚝뚝하신 아버지께서 동네방네 소문내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동기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서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눈사람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 짧은 시간 동안 큰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이번 연수 이후에 지점으로 흩어져서 근무하지만 그때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동기들과 서로 도우며 일하고 싶습니다.

또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70년의 역사,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모란 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선배님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돕는 직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산업은행에만 올인하여 취업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합격하면 기쁜 감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합격한 후에는 연수를 받기 일주일 전까지도 합격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입학한 지 3개월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연수 기간동안 배우는 것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를 공부하고, 이론과 전산실습, 워크숍 등을 통해 정말로 제가 산업은행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신입행원 모두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인사부 연수팀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진지점에 계신 선배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부족함 없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열심히 알려주시는 만큼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 연수팀
이호성 과장



“밝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Q. 연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거듭할수록 확고해지는 신입행원 연수에서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행원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는 것, 둘째로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Q. 이번 연수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상반기 신입행원 연수는 겨울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독감 유행 등 신입행원들의 건강, 컨디션 관리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수 기간 중 휴일이 많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에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꼭 전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외부 특강이나 아웃도어 등 프로그램 일부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 진행 될 온보딩 연수를 통해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 합니다.

Q. 신입행원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팀 빌딩 목적으로 진행된 ‘숯품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물도 나왔고요.

늦은 시간에도 촬영을 위해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를 뛰어다니고, 재촬영과 편집을 거듭하던 신입행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총 6개의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3개 작품을 연수 수료식 행사에서 상영하였으며,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Q. 연수 담당자로서 신입행원들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

연수 기간 중 늘 강조한 것이 ‘태도’입니다. 피터 드러커도 자신의 책 ‘경영의 실제’에서 “모든 것은 태도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을 강조했죠. 출근 전,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를 임하겠다”는 매일의 다짐이 앞으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인생을 운택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은행 생활을 시작한 동기들을 소중히 여기고, 각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선배님들과도 돈독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인사부 연수팀
이병제 대리



“실수를 실패라고 여기지 마세요”

Q. 이번 연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연수교재가 신입행원들의 업무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전산교재 개편에 힘썼습니다. 광범위한 수신 전산 화면에 관련된 설명을 최대한 한 권에 담으려 했으며, 기존의 내용들은 최신 외·내규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입행원 환영의 밤, 워크숍, 액티비티 등을 동기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Q.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첫 번째 신입행원 연수였기에, 연수 담당자로서 세심하게 많은 부분을 챙기는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뒷작업들이 필요했어오.

선배로서의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내나 후배 역할이 익숙했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Q.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외부에서 힐링할 수 있었던 워크숍입니다. 연수의 상당 부분을 직무교육에 집중하면서, 연수생들의 피로도가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과 광화문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신입행원들의 가장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 신입행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 주세요.

일단 제가 MBTI 극 T로, 원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입행원들이 항상 배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모르는 것투성이에, 실수도 많이 하다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1년, 그리고 2년을 계속 생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PEOPLE

신입행원을 소개합니다

○ 신입 일반직A (84명)

□ 신입 일반직B (5명)



기업금융3실 강정훈



코어금융부 권현정



하남지점 금재찬



윤리준법부 김가영



아산지점 김나윤



부산지점 김민걸



영업부 김민준



한티지점 김민혜



서초지점 김성환



시화지점 김수나



영업·투자기획부 김완열



디지털금융부 김의찬



용인지점 김정은



인천지점 김준우



금정지점 김지수



성서지점 김창규



제주지점 김판규



충주지점 김현주



리스크관리부 박승희



기업금융1실 박주영



군산지점 박준형



울산지점 박지원



원주지점 박지형



산업금융협력센터 박찬영



김해지점 백서유



안산지점 서수지



기업구조조정1실 서승우



기업금융2실 서요섭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서지훈



창원지점 성운주



재무회계부 성원용



윤리준법부 성준일



가산지점 손리원



IT 기획부 손지훈



청주지점 송소영



판교지점 송지우



기업금융4실 신유정



재무기획부 신호진



분당지점 심찬혁



해외사업실 오세현



온렌딩금융부 오현우



구로디지털지점 유성현



산업금융협력센터 유인환



대전지점 윤찬울



안양지점 이규민



부산지점 이나현



가산지점 이돈우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동재



잠실지점 이병찬



안양지점 이상민



서초지점 이선화



디지털금융부 이수경



해외사업실 이수진



노원지점 이완희



해외사업실 이용운



정보보호부 이은민



기업구조조정2실 이재훈



부천지점 이종운



IT 기획부 이지영



동탄지점 이찬미



수신기획부 이현승



재무회계부 이호정



종로지점 이희중



대구지점 임세희



정보보호부 임유섭



코어금융부 임지원



천안지점 임형선



지역성장지원실 장소이



금융결제부 장소현



영업·투자기획부 장시은



재무기획부 장지연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혜주



수원지점 전동준



기업금융2실 전민주



광주지점 정미경



마곡지점 정성현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영재



압구정지점 정윤아



지역성장지원실 정재훈



도곡지점 조석호



연금사업실 조아라



기업구조조정1실 조지연



수원지점 최영기



마포지점 최혜린



당진지점 강학구



포항지점 고가민



청주지점 공유민



전주지점 류혜림



여수지점 오민지